

신안공무원노조 “도 넘은 악질민원 더는 못 참아”

2년간 군청에 1147건 전화·직원 징계 강요 등 민원인 2명 형사 고발 과다 민원으로 업무 차질...공무원들 정신적 피해·불면 증세 호소도

악성 고질민원 대응에 공무원노조가 나섰다. 22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최근 악성 고질민원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수년 간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같은 내용의 불필요한 전화통화로 공무를 방해한 신의면 A씨와 압태면 B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고향에 귀농한 이후 거주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주민들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찾아내 진정과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A씨는 2017년부터 신안군에 정보공개 요청

39건, 진정민원 29건, 최근 2년간 군청에 전화 통화한 내역은 1147건에 달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이 같은 과다 민원으로 인해 모든 군민에게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가 A씨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허비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A씨는 군청 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중에는 민원내용과 상관 없는 말투 등으로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통화가 길어져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자 전화를 먼저 끊거나 A씨가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불친절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와 군청 감사부서에 수차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지난 3월에만 공무원징계 민원 4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주의 처분까지 받는 등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불면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폐기를 위한 사건과 관련해 합법적인 행정 처분에도 불만을 품고 자신을 고발한 이웃 주민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면장에게 직원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노조측이 밝혔다. 또 약점을 잡고자 공무원들의 복무를 관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더 이상의 실득과 이해, 양보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이들을 공무원행방해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권현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모든 공무원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황토갯벌 축제 취소 예산 5억원 코로나 대응 지원

군민의날·초의선사 탄생문화제도



무안황토 갯벌랜드.

무안군과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는 6월 개최 예정이던 '제8회 무안황토갯벌 축제'를 전격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자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취소하기로 했다. 박일상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를 통해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청정 갯벌에서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갯벌축제 예산 5억원을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편성해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열 예정이었던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도 취소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광군 '지역특화 9개 작목' 선정 2021년부터 5년간 집중 육성

영광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 9개를 선정해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집중 육성한다. 영광군은 최근 두 차례 열린 지역특화작목 선정 협의회를 거쳐 '3특 6품'에 선정된 9개 작목을 집중 육성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3특 작목에는 고추·딸기·망고, 6품 작목에는 보리·모시·감자·고구마·포도·사과대추를 각각 선정했다. '3특 6품' 작목은 재배가능 수, 발전 가능성, 기초 생산기반 구축 정도, 단위 면적당 농가 소득, 기후변화 대응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엄선했다. 영광군은 '3특 6품' 5개년 육성 계획에 따라 재배 기술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작목별 연구회를 구성해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실증 시범포 운영과 시범사업 추진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수어 전문교육 목포서 배워요” 수어교육원 다음달부터 운영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등 지원



청각장애인과 소통하는 수어를 배울 수 있는 '수어교육원'이 목포에 설립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전남수어교육원'이 목포에 설립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수어교육원은 서울, 경기, 강원도에 이어 전국 네번째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한국수화언어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를 지난해 3월 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보라미 의원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고유 언어임을 전라도민에게 알리고, 한국수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수어교육원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대상으로 전문수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청각·언어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농문화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 통합 증진에 앞장서는 활동을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수어교육원 설립을 통해 수어교육 발전과 청각장애인의 언어·행동 양식이 담긴 농문화 보존, 농인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 등 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 압해도서 흑두루미 100여마리 관찰

국제보호종으로 러·중서 번식 복상 중 중간 기착지로 이용

신안군은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 100여마리가 지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압해도 일대에서 관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무리는 일본이나 순천만에서 월동한 후 번식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다 잠시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압해도에서 관찰된 흑두루미는 논 등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갯벌에서 휴식(잠자리)을 취하며 중간기착지로 이용했다. 흑두루미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순천만과 중국 양쯔강, 일본 규슈지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Vulnerable)으로 분류된 국제 보호종으로 전 세계 개체군이 1만1000여 개체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및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장애인거주시설, 질 높은 서비스로 만족도 'A등급'

시설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영역 최우수 평가

신안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이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5월 문을 연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거주·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56곳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으며, 신안군 장애인거주시설은 전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특히 평가위원들은 “관리자의 운영에 대한 비전과 관점이 긍정적이고, 직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이 높아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입소자의 만족도가 높고 프로그램의 계획·진행·평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고 호평했다.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